한 달 앞서…화순서 '미리 크리스마스' 즐긴다

군, 21~23일 '2025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vol.2' 개최
남산공원·고인돌시장 등서 공연·퍼레이드 행사 풍성

화순군이 올해도 한 달 앞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21일부터 23일까지 화순읍 남산공원과 고인돌 전통시장 일대에서 '2025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vol.2' 축제를 개최한다.

'한 달 먼저 즐기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지역 예술인·상인·청년 셀러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축제다.

군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축제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했다.

행사 기간 남산공원 전역은 반짝이는 트리와 조명으로 꾸며져 도심 속 겨울정원으로 변신한다.

재단은 크리스마스 특유의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을 조성했다.

세부적으로 축제 중심 공간인 '미리미리 크리스마스 마켓'은 군민회관 주차장 일대에서 운영된다.

마켓에는 화순 지역 셀러와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셀러들이 함께하며, 크리스마스 소품과 장식, 공예품, 카드, 스노우볼, 트리 장식, 산타 인형 등 판매 품목의 60% 이상이 크리스마스 관련 아이템으로 구성된다.

먹거리 부스에서는 지역 푸드트럭이 참여해 다양한 겨울 음식을 선보이는 한편, 뱅쇼·바베큐·감바스·굴라시 등 세계 각국의 대표 겨울 간식도 맛볼 수 있다.

21~22일 고인돌 전통시장 일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와글와글 밤시장–세 번째 밤'이 열린다.

시장 상인과 플리마켓 셀러, 먹거리 부스가 함께 참여해 활기찬 야시장 분위기를 연출한다. 시장 내 특설무대에서는 공연과 이벤트가 이어지고, 조명과 포토존이 설치돼 방문객들이 겨울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전통시장과 축제 공간을 연계한 구성은 지역 상권과의 상생 의미를 더한다.

축제의 밤을 밝혀줄 '미리미리 공연 프로그램'은 남산공원 야외무대와 적벽 조형물 앞 소무대에서 열린다. 합창, 재즈, 오케스트라, 마술, 연극 등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어울리는 공연이 매일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이어지고, 버블쇼와 댄스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큰 인기를 끈 '크리스마스 마칭밴드 퍼레이드'는 22~23일 하루 두 차례 열린다.

퍼레이드는 악기밴드와 댄스팀이 남산공원 일대를 행진하며 캐롤을 연주하고, 주요 지점에서는 프린지 형식의 소규모 공연이 동시 진행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구종천 화순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겨울을 기다리는 설렘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곳이 화순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속에서 가족·연인·친구가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정철원 담양군수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주요 현안과 재난 대응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

정철원 담양군수, 지역 현안 정부에 요청
국회 방문…특별교부세·기후재난 대응 제도개선 등

정철원 담양군수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신정훈·안도걸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김재원·신장식·정춘생 의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현안과 재난 대응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발전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정 군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도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군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안도걸 의원에게 하천 설계기준 개선, 가동보 전환, 퇴적토 재활용 규제 완화, 피해지도 제작 등 기후재난 대비 제도개선을 건의하며 "특정 지자체가 아닌 전국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클린하우스 설치, 농어촌도로 307호선 배수개선사업, K-마스터 엑스포 개최 지원 등 생활환경 정비와 문화관광 기반 확충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다.

정철원 군수는 "재난 대응은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무안, '솔로둘로' 프로젝트로 청년 인구 정책 '활력'
남성 12명·여성 10명 참여
'완전 매칭' 4커플 탄생

무안군은 최근 진행된 '솔로둘러' 행사에 남성 12명, 여성 10명 등 총 22명이 참여 4커플이 탄생하며 뜨거운 인기를 끌었다.

인구증가율 군 단위 대한민국 1위를 기록한 무안군이 추진한 청춘 만남 프로젝트 2025년 '솔로둘로(1+1 청춘 남녀 만남이벤트)'에서 남녀가 서로를 1순위로 선택한 '완전 매칭' 4커플이 탄생했다.

19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솔로둘러' 행사에 남성 12명, 여성 10명 등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신청 단계에서 남성 경쟁률은 7대 1, 여성 경쟁률 2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 31.7세, 여성 29.8세로, 대기업 재직자, 공무원, 교사 등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직업군이 주축이 돼 신뢰도 높은 만남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행사는 무안군 대표 명소인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진행됐고, 최근 개통된 무안갯벌탐방다리가 청춘들의 첫 대화를 이끄는 산책 코스로 활용됐다.

참가자들은 갯벌 위로 비치는 빛과 바람 사이에서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갔다.

또 슈퍼데이트권 선정 이벤트, 직접 음식을 함께 만드는 공동 프로그램 등이 이어지며, 서로의 성향과 매력을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러한 다층적 프로그램 구성은 참가자들의 진정성 있는 교류를 이끌었고, 그 결과 모든 커플이 상호 1순위 선택으로 일치하는 특별한 매칭 성과가 나타났다.

김산 군수는 "아름답게 펼쳐진 황토갯벌과 새 탐방다리 위에서 청춘들의 인연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며 "이번 4커플 탄생은 무안군 청년 인구활력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결과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솔로둘로'를 연중 운영하는 만남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청년 정착 지원, 관계형 인구 확대 정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만남 생태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신안 자은 구영·안좌 사치지구, 경계점표지 설치
정확한 정보 제공 '주민 호응'

신안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중 자은 구영지구와 안좌 사치지구 총 1202필지, 92만6000㎡에 대해 최근 경계점표지 설치를 완료했다.

토지소유자와 마을 주민들에게 새롭게 설정된 경계에 대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경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오랜 토지 분쟁을 조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가 가능해지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군은 현재까지 대단위 사업지구인 자은 백산지구 3838필지, 도서지역인 흑산 가거도 1960필지 등 총 34개 지구 1만5337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해 지적측량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공간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안=이훈기 기자

광양시 공고 제2025 -2649호

분묘개장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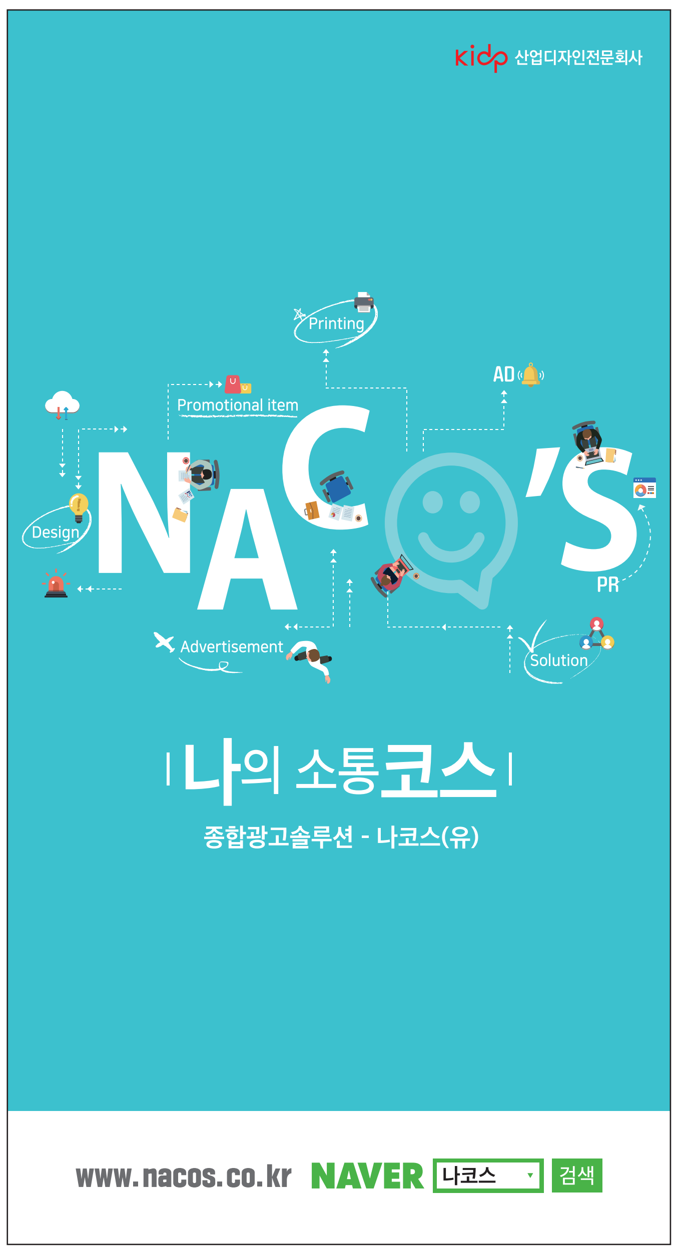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광 양 시 장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규격	기수	비고
황금동 산104	단장	1기	
황금동 산105-2	단장	3기	
황금동 산38-17	단장	3기	
황금동 산38-35	단장	1기	
황금동 산38-21	단장	1기	
황금동 산124-5	단장	2기	
황길동 산126-4	단장	1기	
황길동 산89	단장	1기	
황길동 산102-10	단장	3기	
황금동 산35	단장	2기	
황길동 산71-1	단장	1기	
황길동 산72	단장	1기	
합계		20기	

2. 개장 사유 :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3. 개장 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 개장 신고 후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화장 후 봉안)
4. 무연분묘 안치 장소 및 기간

명칭	소재지	연락처	안치기간	비고
광양시립영세공원	전라남도 광양시 직동1길 300	061-762-4449	봉안 후 10년	

5.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2025. 11. 20.~2026. 2. 20.)
6. 신고 및 연락처
가. 개 장 신고처 : 골약동 주민센터(☎ 061-797-4849)
나. 연고자 신고처 : 광양시 관광과(☎ 061-797-3361)
7. 신고 시 구비서류 : 고인과 연고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분묘 개장신고서 등
8. 기타사항
- 상기 사업부지 내 봉분 망실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